

<미-아프가니스탄 사태 특집 6호>

## 미-아프간 전쟁 발발에 따른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

### 1. 각국의 금융시장 및 현물시장 동향 및 전망

□ 공습 다음날, 세계 증시시장 약보합권 유지

- 이미 예고된 전쟁으로, 미 나스닥 지수 및 프랑크푸르트, 파리 증시, 공습 전날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
  - 일부 아시아권 증시에서는 1~3% 하락하였으나, 이러한 하락폭은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

□ 유가도 소폭 하락에 불과

- 향후에도 배럴당 20~23 달러 수준 유지할 전망
  - 세계경제 침체로 석유수요가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OPEC의 감산 가능성은 낮음
  - 멕시코, 러시아 등과 OPEC회원국간의 가격 경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할 전망

□ 달러화 가치도 소폭 하락으로 진정국면 진입

- 스위스 프랑 및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소폭 하락
  - 지난 9월의 하락세 점차 진정국면
  - 중장기적 전망은 전쟁의 전개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

□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추세 지속

- 미국은 올해 9차례의 금리인하로 현재 FRB 금리는 2.5%
  - 이는 지난 8월의 물가상승률인 2.7%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을 의미
  - 금년 말의 FRB 금리는 2% 전망
- ECB, 캐나다, 스위스 등 주요국 0.15~0.5%p 금리 既인하
- 테러사태 이후, 세계 각국 유동성 공급 확대
  - 미국: 4,000억 달러, 일본: 2조 엔, ECB: 630억 달러 시중에 既공급
    - 각국 정부 경기부양책(미국: 750억 달러 규모) 추진

## 2.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

- 테러사태 이전부터 지속된 선진국의 동반 침체로 교역 규모 축소 및 소비심리 위축
  - 일본은 2/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, 미국도 3/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
  - 동남아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은 미국경제 둔화 및 IT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
- 2001년 세계경제는 2000년 성장률(4.2%)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%대의 침체국면 예상
  - 소비심리 위축으로 4/4분기 세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예상

- 항공, 금융, 관광, 보험산업 등 직접적인 타격
  - 테러재발에 대한 우려, 미-아프간 전쟁의 장기화 및 인근 이슬람 국가로의 확전에 대한 불안심리로 소비심리 위축
    - 연간 1.2%대의 저성장 예상
- 미-아프간 전쟁의 장기화, 확전시 신흥시장엔 파급효과 클 듯
- 지난 10월 8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브라질, 칠레 등 인근국가의 통화가치 하락
  -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, 신흥시장국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자금이탈 우려
- 미-아프간 전쟁의 조기 수습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,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주효할 경우에는 세계경제 조기회복 가능
- 한편, EIU는 향후 미-아프간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국한되어 전개될 가능성을 80%로 전망
    - 인근 회교도들의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, 미국의 아프간 공습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정부는 이란, 이라크,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불과
    - 향후 아프간 지역내 게릴라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사태의 조기수습 가능성은 높지 않음